

축사 짓고 시장 재개장...수마 할킨 구례, 활력 되찾다

수해·태풍·코로나 3중고
군민·봉사자·공무원 3위일체 극복
향우·인근 지자체도 도움의 손길
주택 복구·5일시장 40일만에 개장



구례읍 내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구례시가 40일간의 응급복구를 마치고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지난 18일 구례읍 구례5일시장, 지난달 8-9일 폭우로 시장 전체가 물에 잠긴 지 40일 만에 응급 복구를 마치고 재개장했다. 추서 명절 제수용품을 장만하려는 주민들과 상인들로 북적였다. 풍물패의 풍악소리도 활력을 북돋았다.
슬픔과 허탈, 분노로 일그러졌던 구례군민들의 얼굴에 조금씩 웃음이 깃들어가고 있다.
1800억원이 넘는 피해를 가져다준 유례없는 수해, 2차례의 태풍,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 19 등 삼중고가 겹쳐 초토화 되다시피한 구례지역이 차츰 활기를 되찾고 있다.
물난리로 침수됐던 790여채의 주택은 한국에너지재단의 지원과 기부금으로 장판을 새로 깔고 도배를 시작했다. 가재도구도 씻고, 수리를 마쳤다.
체육관과 학교 강당 등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던 1149명의 이재민들도 거의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고, 171명만이 남아 공공기관의 연수원과 호텔 등 임시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다. 추석전 이들의 입주를 위해 이동식 주택 50채를 짓고 있는 중이다.
찌그러지고 주저앉은 비닐하우스는 폭염 속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다시 일으켜 세워졌다. 새로

하우스비닐을 덮는 등 겨울농사 준비가 한창이다. 축사가 무너지고, 소들이 섬진강으로 떠내려가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서도 살아남은 소들의 울음소리로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4명까지 늘어났으나 주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지난 10일 이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삼중고를 이겨낸 동력은 지역주민과 구례군 인구에 가까운 2만3000여명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 등이 합쳐진 삼위일체의 결과라는 평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김순호 구례군수의 전 군민 일일브리핑은 수해상황과 복구현황을 신속히 알려 행정의 신뢰를 안겼고 군민들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 소방공무원과 LG의인상을 받은 자원봉사자, 해병전우회 등 발 빠른 구조활동으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
취수장의 침수로 상수도 공급이 끊겼으나 관계자들의 철야 작업으로 복구를 앞당겨 SNS에서는 이들을 '작은 영웅'이라 불렀다. 전국 각지에서는 15만5000여점의 많은 구호 물품이 담겨해 수재민

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시장 상인 A(64)씨는 "다시 가게 문을 열게 됐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수해의 원인 규명과 대책, 합당한 피해 배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들과 전국 각지의 향우, 자원봉사자 등이 큰 도움을 주셨다. 감사하다"며 "우리 모두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난국을 극복하자. 피해 배상과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망 전남 최초 시행...연말까지 완료

보성군은 농어촌 인터넷 초고속망 고도화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농어촌 초고속망 고도화 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며 전남에서는 보성군이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최대 50Mbps급 이하의 속도로 운영 중인 마을이 월 사용요금에 따라 1Gbps까지 약 20배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전남도·보성군, KT 간 매칭펀드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만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단독가옥도 인터넷 가입을 희망할 경우 이번 사업에 반영해 별도 주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보성군은 이번 사업으로 약 77개 마을과 200여 단독가옥이 초고속 인터넷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설치비용 때문에 인터넷 사용을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속원 민원이 해결됐다"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영상회의 등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와 CCTV 원격영상감시 등이 절실히 필요한 농어촌 마을에 언택트 문화와 산업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청년 소통·교류 공간 광양 '청년꿈터' 개소



광양지역 청년들의 소통·교류 공간인 '광양청년꿈터'가 지난 18일 문을 열었다. <사진> 광양청년꿈터는 연면적 760㎡ 2층 규모이며 청년센터 사무실, 세미나실, 창의실, 다목적실, 일자리 상담실,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카페 등을 갖췄다.
광양청년꿈터는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재미와 즐거움 가득한 공간이면서,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이 발굴되고 시행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센터이자 전남도와 광양시의 각종 청년사업을 홍보하고 접수하는 행정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양시는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복 시장,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 김한나 여성청년단체 청년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청년꿈터' 개소식을 했다.
개소식에 이어 다목적실에서 안전정 서을 청년허브 센터장과 문성환 청년문화기획자 등 청년창업가와 청년대표들이 모여 '광양, 청년의 꿈을 키우다' 주제로 정책포럼을 가졌다.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사례 발표와 토론회 등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전략을 공유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상습침수 고품읍 460억 들여 '풍수해 정비' 나선다

정부 공모 선정...고흥천 주변 주택·상가 재해 예방

고흥군이 상습침수지역인 고품읍 정비에 나선다. 고품읍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 사업에 상습침수지역인 고품읍 지구가 최종 선정돼 사업비 460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고흥읍 시가지지를 관통해 흐르는 고품천이 폭이 좁은 데다 고품시장 주변 저지대의 물 빠짐이 좋지 않아 2007년 태풍 '나리'를 전후로 침수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흥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통해 상가와 주택의 상습 침수 걱정이 없도록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고흥군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46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내년부터 4년간 고품천 호안 정비 5.4km와 노후교량 재가설 9개소, 봉황산 급경사지 정비 등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집중호우 시 침수위험에 노출된 고품읍을 안전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고흥읍 침수 예방 사업'을 계획했다.
고흥읍 침수사태 조사와 봉황산 주변 급경사지 개선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평가위원들을 설득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고흥군이 상습침수지역인 고품읍 고품천 주변 정비사업에 나선다. <고흥군 제공>

순천시, 평화정원 한·중·일 장군 동상 설치계획 취소

시민의견 수렴 결과 반영

순천시는 순천외성에 추진 중인 '한·중·일 평화정원'의 3개국 장군 동상 설치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애초 한·중·일 평화정원에는 평화광장, 역사체험 학습장, 역사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또 평화광장에 들어설 한·중·일 삼국의 장군 동

상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순천시가 일본 장군 동상 설치를 확정할 것처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일부 언론보도에 따라 오해와 논란이 가중돼 3개국 장군 동상 설치 자체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가 조성 예정인 평화광장에는 3개국 장군 동상을 제외하고 수백 년 전 이 땅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민초와 무명 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물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판석만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한·중·일 평화정원은 순천시에 남겨진 정유재란의 흔적이자 국난극복의 역사 현장인 순천외성 인근에 8만970㎡ 규모의 평화공존의 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IG,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